

經濟危機 以後 都市勤勞者家口의 貧困逆動性 및 貧困期間 研究

崔賢壽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용어: 근로빈곤층, 빈곤역동성, 빈곤지속기간, 빈곤경험기간

I. 序 論

19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사회에 빈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빈곤문제인식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옮겨가고 있던 시기에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박능후, 2000). 특히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은 한국사회의 빈곤규모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위기는 개별가구의 소득을 감소시켰으며, 소득의 감소는 가계 지출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빈곤가구가 크게 의존해왔던 사적이전의 감소를 동반하였다(김태완, 2000). 그 결과, 경제위기 직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새롭게 빈곤상태에 진입하게 된 가구의 증가로 인해 빈곤율은 높아졌으며, 개별 빈곤가구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빈곤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빈곤문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해 특정시점의 빈곤실태를 분석하거나 시계열자료를 통해 총량적인 빈곤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빈곤지표들은 특정시점에서의 총량적인 빈곤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개별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와 같은 빈곤의 역동적 측면 또는 빈곤지속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태적·양적 빈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빈곤의 역동성과 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취약성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로 남아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자료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로서, 이를 통해 개별가구의 빈곤진입 및 탈피 등 역동적 변화와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의 변화,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先行研究 檢討

빈곤에 대한 정태적 분석은 개별가구의 지속적·반복적인 빈곤과 일시적인 빈곤에 대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이들 빈곤가구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으므로 빈곤가구의 특성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의 빈곤연구에 있어서는 과거의 정태적 분석과 달리 빈곤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arr, 1988).

빈곤역동성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역동성 가운데 빈곤탈피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들은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나 특성이 빈곤층에 유입되고 탈출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빈곤의 동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Levy(1977), Hill(1981), Bane &

Ellwood(1986), Stevens(1994) 등은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빈곤동학을 분석했다(금재호·김승택, 2001). 한편, 빈곤역동성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서 Oxley H. et al.(1999, 2000)과 OECD(2001)는 패널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OECD 주요국가에 대하여 빈곤역동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철희(1997)와 박병현(1997)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동태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소득관련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빈곤을 직접 다루지 못한 대신에 대리변수로 공공부조프로그램 수혜여부를 사용하여 생활보호가구의 수혜지속기간 및 생활보호대상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대우패널데이터의 구축으로 인해 빈곤에 대한 동태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원익(1999)과 최정균(2001)은 대우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위기 이전의 빈곤지속기간 및 빈곤탈피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실업의 증가와 빈곤 및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빈곤 및 실업의 역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박순일 외(2000)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위기 빈부격차 확대에 인하여 나타난 개별가구의 계층귀속 및 계층이동과 그 요인을 Multi-nominal Log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Tobit 분석을 통해 빈곤경험기간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있다. 한편, 금재호·김승택(2001)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위기 이후 증가된 빈곤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저생계비 대신 OECD가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사용하여 먼저 빈곤의 현황을 살펴보고, 빈곤가구의 특성과 동태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분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른 가구의 비중이 낮고 빈곤진입과 탈출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Logit 분석을 사용하여 가구주의 특성, 가구의 구성, 지역적 차이 등이 빈곤여부와 빈곤의

동태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구인회(2001)의 연구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근로능력에 따른 가구 유형별 빈곤층의 구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집단이 주류를 이루었던 이전 시기의 빈곤과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빈곤이행 요인을 가구구성의 변화, 가구 근로소득의 증가(감소), 가구 비근로소득의 증가(감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진호 외(2002)의 연구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빈곤과 관련해서는 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빈곤진입 및 탈출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빈곤경험여부와 기간을 결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기존 연구들이 주로 2~3년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이행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분기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의 역동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빈곤역동성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경제위기 이후 빈곤역동성의 변화추이를 밝히고 있으며, 빈곤기간에 따른 집단간 비교를 통해 단기빈곤 가가와 장기빈곤 가가의 특성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研究方法

1. 分析資料 및 分析對象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도시근로자가가의 빈곤역동성을 분석하

기 위해 1998년 1분기부터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적 통계로서 가구 소비실태조사(1996) 또는 대우패널데이터(1993~1998)와 달리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소득분포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는 농어촌가구와 1인 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이외의 가구는 소득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로 한정하여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가구에 대한 연속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가운데 총 10분기에 걸쳐 조사결과가 제공되고 있는 978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貧困 및 所得 概念定義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빈곤에 대한 개념정의, 빈곤의 분석단위(가구 또는 개인), 가구 또는 개인의 후생을 측정하는 지표(소득 또는 지출) 등에 대한 문제이다(Barr, 1998). 따라서 빈곤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연구주제일지라도 빈곤 및 소득에 대한 개념정의, 분석대상 및 단위, 분석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빈곤역동성과 빈곤기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빈곤 및 소득의 개념정의와 분석단위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근로자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빈곤선으로 절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계측 및 발표되지 않았던 1998년의 경우에는 1999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¹⁾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지 않은 7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같이 가구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²⁾. 본 연구에서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연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表 1> 1998~2000年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1998	311,926	516,599	710,547	893,770	1,016,216	1,146,707	1인당 10만원 추가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인당 11만원 추가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9	1,191,135	1인당 12만원 추가

다음으로 소득 및 가계지출의 구성 및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정의는 <表 2>와 같다.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되며, 경상소득은 다시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크게 구분되며, 소비지출은 10개의 비목으로 구성된다.

1) 소비자물가지수는 1995년의 100을 기준으로 1998년은 117.8, 1999년은 118.8이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에 반영된 가구균등화지수는 1인가구 0.349, 2인가구 0.578, 3인가구 0.795, 4인가구 1.000, 5인가구 1.137, 6인가구 1.283임(김미곤 외, 1999).

2) 본 연구와 같이 7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균등화지수 대신 추가 1인당 일정금액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경우, 최저생계비와 빈곤율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表 2〉 所得 및 家計支出의 概念構成

구 분		개 념	
소 득	경상 소득	시장 소득	- 근로소득 • 임금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임금 또는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액을 의미 •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로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얻은 소득 • 부업소득: 주된 직업이 없는 가구원이 생활비 보조를 위해 일을 하여 얻은 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전 소득	• 공적이전: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 사적이전: 친척이나 이웃 등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보조금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퇴직일시금, 보험금 수령 등 비정기적인 소득	
가 계 지 출	소비 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 및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	
	비소비 지출	• 조 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기타 세금 • 사회보장부담금: 퇴직금기여,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이차지급, 부담금, 송금 및 보조 등 기타 비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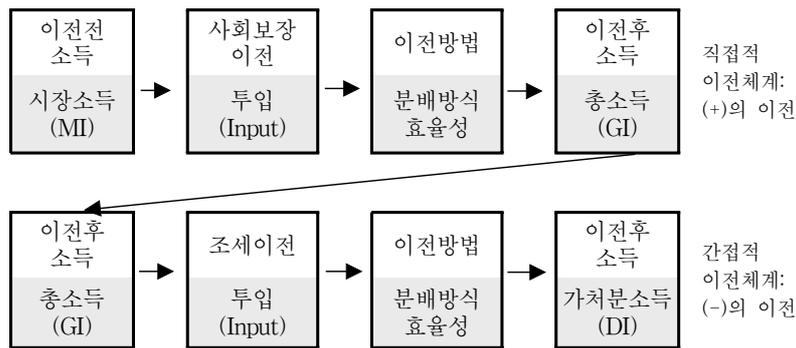
資料: 최현수, 『EITC 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및 통계청, 『2001 도시가계연보』, 2002.에서 재구성

한편, Atkinson A. B. et al.(1995)의 경우에는 소득의 개념을 근로소득, 자산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의 여섯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최정균, 2001). 또한, Mitchell(1991)은 소득이전의 단계에 따라 Atkinson A. B.의 분류와 유사하게 시장소득(market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득이전은 사회보장이전(social security transfer)과 조세이전(tax transfer)으로 구성하여 [그림 1]과 같은 所得移轉體系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소득개념과 Mitchell의 소득이전체계에 따라 임금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으로 구성된 시장소득에 공·사적 이전소득을 더하여 총소득을 구하고, 이러한 총소득으로부터 조세

및 社會保障부담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所得移轉體系



資料: Michell, D.,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1991.
 최정균, 『사회보장이전의 빈곤제거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현수, 『EITC 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 分析方法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빈곤율은 거시적 관점에서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가구가 빈곤에 진입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역동적인 변화와 빈곤상태에 머무르는 기간 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Oxley H.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총 10분기 동안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분기별 정태적 빈곤율 이 외에 개별가구의 빈곤진입 및 탈피 등 빈곤역동성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빈곤기간을 빈곤지속기간과 빈곤경험기간으로 구분하여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의 변화와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각각의 개념과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가구의 빈곤역동성은 각 분기별 빈곤여부의 변화에 따라 빈곤유지·비빈곤유지·빈곤탈피·빈곤진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분기 동안 9회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 개별가구의 빈곤상태 변화를 측정하여 각 시점에 따라 빈곤역동성의 4가지 유형별 규모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각 시점별로 빈곤유지비율·빈곤탈피비율·빈곤진입비율·빈곤역동성 지수를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t분기의 빈곤가구는 t분기와 t+1분기 사이에 빈곤에서 탈피한 가구와 빈곤상태를 유지하는 가구로 나누어지며, t+1분기 빈곤가구는 t분기와 t+1분기 사이에 빈곤상태를 유지하는 가구와 새롭게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 가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表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t분기와 t+1분기 사이의 빈곤유지비율은 t분기 빈곤가구 대비 t분기와 t+1분기 사이에 빈곤상태를 유지한 가구의 비율로, t분기와 t+1분기 사이의 빈곤탈피비율은 t분기 빈곤가구 대비 t분기와 t+1분기 사이에 빈곤에서 탈피한 가구의 비율로, 그리고 t분기와 t+1분기 사이의 빈곤진입비율은 t분기 비빈곤가구 대비 t분기와 t+1분기 사이에 새롭게 빈곤상태에 처한 가구의 비율로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t분기와 t+1분기 사이의 빈곤역동성 지수는 전체가구 가운데 t분기와 t+1분기 사이에 빈곤탈피 또는 빈곤진입의 변화를 나타낸 가구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빈곤지속기간은 개별가구가 빈곤 상태에 진입한 이후 연속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기간을 의미한다. 개별가구가 전체 기간 중에 빈곤 및 비빈곤 상태를 반복할 경우 빈곤지속기간은 각각 개별적인 사례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경험기간은 위에서 정의한 빈곤지속기간과 달리 전체 분석기간 가운데 각 가구가 연속 또는 불연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기간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경험기간은 앞서 정의한 빈곤지속기간과는 개념 및 전체 사례수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경험기간에 따라 전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빈곤 가구, 1년 미만(1~3분기)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한 단기 빈곤 가구, 1년 이상(4분기 이상)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한 장기빈곤

가구로 구분하여 세 집단 사이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집단별 특성 비교를 위해 가구주 특성, 가구 일반적 특성, 가구 경제적 특성으로 범주화하고,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表 3〉 貧困逆動性 關聯 指標

• 빈곤 _t	= 빈곤유지 _{t→t+1} + 빈곤탈피 _{t→t+1}
• 빈곤 _{t+1}	= 빈곤유지 _{t→t+1} + 빈곤진입 _{t→t+1}
• 빈곤유지비율 _{t→t+1}	$= \frac{\text{빈곤유지}_{t \rightarrow t+1}}{\text{빈곤}_t}$
• 빈곤탈피비율 _{t→t+1}	$= \frac{\text{빈곤탈피}_{t \rightarrow t+1}}{\text{빈곤}_t}$
• 빈곤진입비율 _{t→t+1}	$= \frac{\text{빈곤진입}_{t \rightarrow t+1}}{\text{비빈곤}_t}$
• 빈곤역동성지수 _{t→t+1}	$= \frac{\text{빈곤탈피}_{t \rightarrow t+1} + \text{빈곤진입}_{t \rightarrow t+1}}{\text{전체가구}_t}$

IV. 研究結果

1. 貧困逆動性 分析結果

빈곤역동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정태적으로 빈곤의 총량을 보여주는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에 6.65%로 가장 높았으며, 1999년 2분기까지 약 5% 전후에서 변화하다가 1999년 3분기부터 크게 감소하여 약 3%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율의 변화패턴은 실업률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4〉 分期別 貧困率 및 失業率 變化推移

(단위: 가구, %)

구분 (N=978)	1998년				1999년				2000년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빈곤가구	65	57	59	46	57	53	26	26	34	30	45.3
빈곤율	6.65	5.83	6.03	4.70	5.83	5.42	2.66	2.66	3.48	3.07	4.63
실업률	5.7	6.9	7.4	7.4	8.4	6.6	5.6	4.6	5.1	3.8	6.15

註: 빈곤율은 전체 분석대상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업률은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2001. 참조

한편, 빈곤율의 변화패턴 가운데 주목할만한 사실은 각 연도 1분기의 빈곤율이 나머지 분기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4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계절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빈곤선의 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기준인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는데, 매년 초 상향조정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분기의 총량적인 빈곤율은 전년도 4분기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빈곤율의 변화추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분기별로 총량적인 빈곤수준만을 나타낼 뿐이며, 개별가구들이 빈곤과 비빈곤 사이에서 보여주는 역동적인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미시적 접근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실업과 취업 사이의 역동적 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98년 1분기부터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 9회에 걸쳐 나타난 개별가구의 빈곤상태 변화를 측정하여 <表 5>와 같이 각 시점별로 빈곤역동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表 6>과 같이 빈곤역동성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가로표 5, 6 삽입)

먼저 빈곤역동성의 유형을 빈곤탈피, 빈곤유지, 빈곤진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빈곤탈피 가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1999년 3분기까지 약 30가구 정도였으며, 이후에는 약간 더 낮아져 오히려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에서 탈피한 가구의 비율인 빈곤탈피비율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49.2%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1999년 2분기 이후부터 60%를 상회하였으며, 2000년 2분기에는 약 67.6%로 나타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빈곤탈피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유지 가구의 경우, 절대적 규모는 빈곤탈피 가구와 마찬가지로 1999년 3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빈곤유지비율은 빈곤탈피비율과 반대로 경제위기 직후 50.8%에서 점차 낮아져 2000년 2분기에는 32.4%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유지비율과 빈곤탈피비율이 이전 기간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비율의 합이 100%가 되기 때문에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며,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도시근로자 빈곤가구의 빈곤탈피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빈곤유지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역동성의 한 측면인 빈곤진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빈곤진입 가구의 절대적 규모는 1999년 2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4분기와 1999년 1분기 사이, 1999년 4분기와 2000년 1분기 사이에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분기 비빈곤 가구 가운데 새롭게 빈곤에 놓이게 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진입 비율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빈곤율이 증가할 때 빈곤진입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연도 1분기에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빈곤율의 변화패턴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절적 요인과 빈곤선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빈곤진입비율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직후에 2.6%, 3.3%에 이르렀으나 1999년 2분기 이후에는 2%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경제위기 이후의 평균 빈곤진입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은 Oxley et al.(1999)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4.9%), 영국(7.9%), 독일(4.2%), 캐나다(4.3%)

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진입비율보다 낮은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를 통해 역동적 변화를 나타낸 가구들과 빈곤역동성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과 관련해서 역동적 변화를 나타낸 가구의 절대적 규모는 경제위기 직후부터 1999년 2분기까지 50가구를 상회하였고, 1998년 4분기와 1999년 1분기 사이에 63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해당 기간동안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1999년 2분기 이후에는 역동적 변화를 보인 가구의 규모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빈곤과 관련된 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가구 가운데 빈곤탈피 또는 빈곤진입의 변화를 보인 가구의 비율로서 빈곤과 관련된 역동성을 나타내는 빈곤역동성지수의 변화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 직후에 약 5~6% 정도에서 1999년 2분기 이후에는 약 3~4%로 낮아졌으며, 경제위기 이후 평균 빈곤역동성 지수는 4.85%였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약 4~5%가 각 분기마다 빈곤진입과 빈곤탈피라는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가구에 있어서 나타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총량적인 빈곤율의 증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빈곤역동성지수가 5% 이상이었던 경제위기 직후부터 1999년 2분기 이전까지 빈곤율의 변화는 약 1%포인트 내외였던 반면, 빈곤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1999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는 빈곤역동성 지수가 4% 정도로 오히려 낮았다. 또한 빈곤율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던 1999년 3분기와 4분기 사이에도 빈곤역동성 지수는 약 3%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빈곤율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은 단순한 빈곤역동성지수의 크기가 아니라, 빈곤탈피비율과 빈곤진입비율의 상대적 크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 빈곤율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개별가구의 수준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역동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貧困持續期間 分析結果

빈곤지속기간은 개별가구가 빈곤상태에 진입한 이후 연속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기간을 의미하며, 개별가구가 빈곤 및 비빈곤 상태를 반복할 경우 빈곤지속기간은 각각 개별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체 도시근로자가구(978가구)에 대하여 빈곤지속기간을 살펴본 결과, <表 7>과 같이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176가구에 있어서 빈곤지속기간별로 261개의 개별사례를 분석³⁾하였다.

<表 7> 貧困持續期間 및 貧困進入·脫皮時點에 따른 分布

(단위: 가구)

구 분	분기										합계
	1	2	3	4	5	6	7	8	9	10	
빈곤진입·탈피 관찰가구	123	26	10	8	-	-	-	-	-	-	167
빈곤진입시점 절단 가구(left-censored)	32	10	5	7	1	3	2	4	-		64
빈곤탈피시점 절단 가구(right-censored)	19	7	3	-	-	-	-	-	-	1 ¹⁾	30
합 계	174	43	18	15	1	3	2	4	-	1	261

註: 1) 전체기간(10분기) 동안 빈곤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시점을 모두 알 수 없는 가구임.

먼저, <表 8>의 빈곤지속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빈곤을 경험했던 261

3) 빈곤지속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가구별 빈곤지속기간 분포의 추정에서는 빈곤진입 시점을 알 수 없는 좌측절단사례(left-censored case)와 빈곤탈피 시점을 알 수 없는 우측절단사례(right-censored case)를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단, <表 7>의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의 분석에서는 빈곤탈피 시점을 알 수 없는 우측절단사례를 제외하였다.

개의 개별사례 가운데 약 66.7%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분기 동안 빈곤에 머무른 가구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빈곤에 머무른 기간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분석한 평균 빈곤지속기간은 약 1.74분기로서 새롭게 빈곤에 진입한 경우 빈곤이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表 8〉 貧困持續期間 分布

(단위: 가구, %)

구분	분기										평균 지속기간
	1	2	3	4	5	6	7	8	9	10	
사례수	174	43	18	15	1	3	2	4	-	1	1.74분기
(비율)	(66.7)	(16.5)	(6.9)	(5.7)	(0.4)	(1.1)	(0.8)	(1.5)	(0.0)	(0.4)	

註: N=261

다음으로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빈곤탈피 시점을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총 231개의 개별사례를 분석한 결과, 빈곤을 경험한 모든 사례 가운데 1분기가 지난 이후에 빈곤에서 탈피한 경우는 67.1%로 나타났다. 또한 2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빈곤에 머무르고 있는 사례 가운데 2분기가 경과한 후에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는 47.4%, 3분기 동안 계속해서 빈곤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 가운데 3분기 이후에 빈곤에서 탈피한 경우는 37.5%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4분기 이상 빈곤에 지속적으로 머무른 가구가 빈곤에서 탈피할 확률을 측정한 결과 평균 34.1%로서, 1~3분기 빈곤지속 이후 평균 빈곤탈피 확률인 50.7%보다 낮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빈곤지속기간 분포 및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에 대한 분석결과는 빈곤역동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상당수가 빈곤지속기간이 1년 미

만(1~3분기)으로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한 빈곤가구는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자활의지가 약화되고 의존성이 강화됨으로써 빈곤의 늪에 빠져 빈곤탈피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대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특정 가구가 새롭게 빈곤에 진입할 경우 이들 가구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빈곤진입 초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表 9〉 貧困持續期間에 따른 貧困脫皮 確率

(단위: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평 균	
				1~3분기	4분기 이상
빈곤탈피 확률	67.1	47.4	37.5	50.7	34.1

註: N=231

3. 貧困經驗期間 分析結果

빈곤경험기간은 위에서 살펴본 빈곤지속기간과 달리 개별가구가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⁴⁾. 본 연구에서는 개별가구의 빈곤경험기간 분포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비빈곤 가구’, 1년 미만(1~3분기)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한 ‘단기빈곤 가구’, 1년 이상(4분기 이상)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한 ‘장기빈곤 가구’로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별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의 특성을 가구주 특성,

4) 이는 빈곤경험횟수로 측정할 경우 반복빈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빈곤기간에 대한 정보를 손실하기 때문에 빈곤경험기간을 사용하고 있다.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⁵⁾.

먼저, 빈곤경험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82%가 경제위기 이후에 전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이들 가구를 포함한 전체 평균 빈곤 경험기간은 0.46분기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1분기 동안이라도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는 전체의 18%에 이르렀는데, 이는 앞서 <表 4>에서 매 분기마다 정태적으로 측정된 빈곤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역동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약 75%가 경제위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1년 미만(1~3분기)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비빈곤 가구를 제외한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평균기간은 2.57분기로 나타났다.

<表 10> 家口別 貧困經驗期間 分布

(단위: %)

구 분	분기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N=978)	82.0	8.8	3.0	1.8	1.3	0.8	0.7	0.9	0.3	0.3	0.1	0.46 분기
빈곤경험 (N=176)	-	48.9	16.5	9.7	7.4	4.5	4.0	5.1	1.7	1.7	0.5	2.57 분기

이상과 같은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분포에 대하여 빈곤경험기간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빈곤경험기간의 가중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表 11>과 같다. 여기서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한 단기빈곤의 비중이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분기 이상의 구성비율은 가중치의 영향으로 <表 10>보다 높은 56.8%로 나타났다.

<表 11> 貧困經驗期間의 加重比率

5) 이와 같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의 특성을 분석한 것은 이 시기의 특성이 경제위기 이후 기간동안의 빈곤경험여부와 빈곤역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위: %)

구분	분기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비율	19.0	12.9	11.3	11.5	8.8	9.3	13.9	5.3	6.0	2.0	100.0

다음으로,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비교를 위하여 빈곤경험기간에 따라 비빈곤 가구(0분기), 단기빈곤 가구(1~3분기), 장기빈곤 가구(4분기 이상)로 각각 분류한 결과, 세 집단은 각각 전체 가구의 82.0%, 13.5%, 4.5%를 차지하였으며, 단기빈곤 가구와 장기빈곤 가구의 평균 빈곤경험기간은 각각 1.48분기와 5.86분기로 나타났다.

<表 12> 貧困經驗期間에 따른 集團 分類

(단위: 가구, %)

구 분	전체 가구	비빈곤 가구 (0분기)	단기빈곤 가구 (1~3분기)	장기빈곤 가구 (4분기 이상)
가구수(비율)	978(100.0)	802(82.0)	132(13.5)	44(4.5)
평균 빈곤경험기간	0.46분기	0분기	1.48분기	5.86분기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빈곤경험기간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의 주요 특성을 가구주 특성,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먼저, <表 13>의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주 성별에 있어서 장기빈곤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비빈곤(6.1%) 및 단기빈곤 가구(8.3%)와 달리 27.3%로 매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가구주일수록 장기간 빈곤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여성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구주의 연령은 장기빈곤 가구일수록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가구주의 학력에 있어서는 세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가구주의 비율이 비빈곤 가구에서는 32.2%로 나타난 반면, 단기빈곤 가구에서는 11.7%, 장기빈곤 가구에서는 4.9%로 매우 낮았다. 이와는 반대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은 비빈곤 가구의 경우 14.7%인 반면, 장기빈곤 가구에서는 56.1%로 나타나 가구주의 학력이 빈곤경험기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여성 빈곤가구와 같이 특정 빈곤 계층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최근의 사회변화 속에서 교육수준 및 정보접근성은 빈곤과 분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서 가구주의 고용상태에 있어서도 세 집단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빈곤 가구의 경우에는 사무직 또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97.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단기빈곤 가구의 가구주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62.9%로 사무직근로자보다 훨씬 높았고, 생산직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21.2%로 비빈곤 가구의 약 8배에 해당했다. 또한, 장기빈곤 가구의 가구주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불과 6.8%인 반면에 생산직 임시·일용근로자가 36.4%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은 경제위기 직후 확대되기 시작한 고용상태의 불안정이 빈곤의 장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가구규모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전체 평균 가구규모인 3.86명과 유사하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분석자료로 사용된 도시가계조사 원자료가 1인 가구를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가구유형을 비교해 보면 장기빈곤 가구일

수록 노인가구⁶⁾와 모자가구의 비율은 각각 2.3%로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한편, 장기빈곤 가구의 맞벌이가구 비율은 13.6%로서 비빈곤 가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빈곤 가구일수록 소득원이 다원화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表 13〉 貧困經驗期間에 따른 集團別 家口主 特性 比較

(단위: 세, %)

구 분	전체 (N=978)	비빈곤 (N=802)	단기빈곤 (N=132)	장기빈곤 (N=44)	통계치
가구주 성별					$\chi^2=27.603^{**}$
남성	92.6	93.9	91.7	72.7	
여성	7.4	6.1	8.3	27.3	
가구주 연령	40.91	40.71	41.62	42.48	F=1.273
가구주 학력					$\chi^2=123.257^{**}$
초등학교 이하	6.5	5.0	10.9	24.4	
중학교	12.9	9.7	26.6	31.7	
고등학교	44.7	44.9	46.1	36.5	
전문대학	7.4	8.2	4.7	2.5	
대학교	24.9	28.1	10.9	4.9	
대학원 이상	3.6	4.1	0.8	0.0	
가구주 고용상태					$\chi^2=176.321^{**}$
사무직	44.2	50.9	15.9	6.8	
생산직(상용)	49.2	46.5	62.9	56.8	
생산직(임시·일용)	6.6	2.6	21.2	36.4	

註: * p<0.05, ** p<0.01

6) 도시근로자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비율은 다른 조사자료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14〉 貧困經驗期間에 따른 集團別 家口의 一般的 特性 比較

(단위: 명, %)

구 분	전체 (N=978)	비빈곤 (N=802)	단기빈곤 (N=132)	장기빈곤 (N=44)	통계치
가구규모	3.86	3.86	3.85	3.89	F=0.023
가구유형					$\chi^2=20.011^{**}$
노인가구	0.3	0.1	1.5	2.3	
모자가구	0.6	0.5	0.8	2.3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30.9 68.2	33.1 66.3	23.5 74.2	13.6 81.8	
주택소유 여부					$\chi^2=32.017^{**}$
소유	74.6	77.4	68.9	40.9	
비소유	25.4	22.6	31.1	59.1	
주택점유 형태					$\chi^2=71.979^{**}$
자가	70.8	73.3	65.9	38.6	
무상주택	0.9	0.9	1.5	0.0	
사택	1.5	1.7	0.8	0.0	
전세	21.5	19.9	25.8	38.6	
보증부월세	4.2	3.9	3.7	11.4	
사글세	0.9	0.2	2.3	9.1	
월세	0.2	0.1	0.0	2.3	

註: * p<0.05, ** p<0.01

다음으로 주택소유 여부와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비빈곤 가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77.4%,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68.9%로 높은 반면, 장기빈곤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59.1%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장기빈곤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가의 비율이 38.6%로 매우 낮은 반면, 월세(보증부월세) 및 사글세의 비율이 22.8%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빈곤 가구(4.2%)의 약 5.4배와 단기빈곤 가구(6.0%)의 3.8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빈곤 가구의 경우에 전세보증금 마련과 월세 등 주거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빈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빈곤 가구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빈곤대책으로서의 주거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세 집단간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가구내 취업인원수에 있어서 장기빈곤 가구는 1.27명인 반면, 비빈곤 가구 1.54명, 단기빈곤 가구 1.4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으며, 특히 사후분석 결과 단기빈곤 가구는 비빈곤 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인원수에 있어서 단기빈곤 가구의 특성이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구내 취업인원수 분포에 있어서 비빈곤 가구가 높은 것은 취업자가 2인 또는 3인인 가구의 비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총소득은 비빈곤 가구가 약 245만 4천원인 반면, 장기빈곤 가구의 경우 약 81만 8천원으로서 비빈곤 가구의 약 1/3 정도에 불과했으며, 1998년 4인가구 기준 절대빈곤선인 약 89만 3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단기빈곤 가구는 약 132만 4천원으로 장기빈곤 가구의 약 1.6배였으며, 4인가구 기준 빈곤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총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있어서 집단별 격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 소득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빈곤 가구의 경우 평균 근로소득이 약 228만원인 반면, 장기빈곤 가구는 약 78만 3천원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앞서 살펴본 가구주의 고용형태 및 가구내 취업인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장기빈곤 가구의 경우 상당수가 생산직 임시·일용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완전 고용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역시 비빈곤 가구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나, 총소득 중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 내외였다. 반면, 이전소득은 단기빈곤 가구에서 약 6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빈곤 가구가 장기빈곤 가구보다도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까지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전통적으로 사적이전의 비중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이 오히려 정규근로자 중심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층에게 오히려 사적이전을 받을 만한 주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⁷⁾.

〈表 15〉 貧困經驗期間에 따른 集團別 家口의 經濟的 特性 比較
(단위: 명, 원, %)

구 분	전체 (N=978)	비빈곤 (N=802)	단기빈곤 (N=132)	장기빈곤 (N=44)	통계치
취업인원수	1.51	1.54	1.44	1.27	F=4.226*
소득					
총소득	2,227,551	2,453,609	1,323,769	818,478	F=108.877**
근로소득	2,067,413	2,279,623	1,206,370	782,551	F=103.682**
사업·부업소득	81,225	93,855	26,461	15,304	F=4.378*
재산소득	39,375	43,871	24,934	738	F=2.287*
이전소득	39,538	36,260	66,004	19,885	F=1.026
가계지출	1,417,979	1,497,987	1,095,983	925,640	F=21.616**
흑자액	809,572	955,622	227,786	-107,162	F=51.090**
흑자율	36.34	38.95	17.21	-13.09	F=40.177**

註: * p<0.05, ** p<0.01

다음으로 가계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빈곤 가구의 경우 약 149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빈곤 가구는 약 92만 6천원으로 약 62%에 해당했다. 장기빈곤 가구의 총소득이 비빈곤 가구의 33.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가계지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 등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는 가계지출은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가구의 소득이 생계유지를 위해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부채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총소득과 가계지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되는 평균 흑자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비빈곤 가구의 경우 약 39.0%, 단기빈곤 가구는 약 17.2%의 흑자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장기빈곤 가구는 약 10만 7천원 정도 가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약 -13.1% 만큼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수지가 적자상태에 놓여있는 가구가 빈곤에 진입했을 경우,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V. 結論 및 政策的 含意

본 연구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중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개별가구의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 및 빈곤경험기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태적인 빈곤규모를 보여주는 빈곤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위기 이후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역동성과 빈곤기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대책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기빈곤·장기빈곤 등 빈곤의 형태에 따른 집단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빈곤역동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빈곤율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날지라도 미시적 측면에서 개별가구의 빈곤역동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빈곤율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역동성을 분석한 결과, 1999

년 3분기 이후부터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역동적 변화를 나타내는 가구의 절대적 규모는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유지비율과 빈곤진입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빈곤탈피비율은 점차 증가함으로써 빈곤율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빈곤진입과 빈곤탈피의 역동적 변화정도를 의미하는 빈곤역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직후 5~6%에서 약간 낮아져 1999년 2분기 이후에는 3~4%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의 3~4%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매 분기 빈곤진입과 빈곤탈피라는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 사이에 계층이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빈곤지속기간 및 빈곤경험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빈곤지속기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했다. 둘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다. 최초 빈곤진입 이후 1분기가 경과했을 때 빈곤에서 탈피할 확률은 67.1%인 반면, 4분기가 경과한 이후의 확률은 절반수준인 34.1%로 낮아졌다.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빈곤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집중시키는 것이 빈곤대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의 18%로 정태적 빈곤율보다 매우 높았지만,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약 75%가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빈곤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경험기간에 따라 비빈곤 가구, 단기 빈곤 가구, 장기빈곤 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가구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 가구규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기빈곤 가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매

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가구주 성별, 가구유형, 주택소유여부, 가계수지 흑자율 등에서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빈곤 가구에 대해서 빈곤이 장기화되기 이전에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단기빈곤 가구와 장기빈곤 가구 등 다양한 빈곤의 유형에 따라 가구특성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절한 빈곤대책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參 考 文 獻

- 강철희,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 1997.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2001.
- 금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김태완, 「조세 및 소득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박능후,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2000.
- 박병현,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2호, 1997.
- 박순일·최현수·강성호,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이원익, 「빈곤지속 기간과 빈곤탈피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최정균, 「사회보장이전의 빈곤제거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현수, 「EITC 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2001.
- 통계청, 『2001 도시가계연보』, 2002.
- Atkinson, A. B. et al.,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urg Income Study”, *Social Policy Studies*, No.18, 1995.
- Barr, N., *The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1998.
- Michell, D.,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1991.
- Oxley, H. et al.,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212, 1999.
- _____, “Poverty Dynamics in Six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30, 2000.
- OECD, “Money too Tight to Mention: Poverty Dynamics in OECD Countries”,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2001.

Summary

A Study on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Urban Worker Households after the Economic Crisis

Hyun-Soo Choi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